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음 3월 15일) 제22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강선달, 농촌체험 1번지 성장 기대”

송하진 도지사, 고창 방문

농촌관광 거점 개소식 참석
토굴된장 찾아 현장 시찰
상하농원서 발전방안 논의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전북대도약을 위한 시군 방문 다섯번째로 고창군을 찾은 가운데 민선6기부터 삼락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숙박, 식사, 체험, 세미나가 가능하게 시설이 완비된 고창 강선달 농촌관광 거점마을 개소식에 참석해 체험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시군 방문 다섯 번째로 고창군을 찾았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전통식품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개소하는 고창 강선달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영농조합법인 토굴된장, 6차산업 소득창출의 성공모델인 상하농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민선6기부터 삼락농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숙박, 식사, 체험, 세미나가 가능하게 시설이 완비된 고창 강선달 농촌관광 거점마을 개소식에 참석해 체험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유기상 고창군수와 방세혁 마을대표 등 마을주민 200여명이 함께했다.

고창 강선달거점마을은 총 31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층부터 4층은 15개 숙박시설이 있고, 1층은 음식체험관 등으로 조성, 숙박 시설에는 70명, 음식체험관에는 80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해 마을 일자리 창출과 관광계 유입으로 지역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세혁 추진위원장은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이뤄진 구시포 해수욕장이 있고, 복분자 따기, 소리다육 식물심기, 복분자·아로니아 비누만들기, 깃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에서 농축 수산업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강선달이, 오늘 개소를 계기로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을 기원하며, 강선달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여행체험1번지 전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토굴숙에서 생산한 저염식 토굴된장을 활용해 ‘건강발효밥상 체험’ 농가 민박 및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토굴된장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전통식품체험시설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향토식품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상관 영농조

합법인 토굴된장 대표는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은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중요한 자산만큼 전통 발효식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을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매년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를 비롯하여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8개소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농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산물의 단순생산, 판매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숙박 등이 연계 복합된 새로운 6차산업 소

득창출 모델인 상하농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지역 53개 농가와 협약을 맺고 상품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의 70% 이상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농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서는 농업이 미래고, 농촌이 희망이라며, 시군과 협력하여 고유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라북도 농촌융복합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일요일신문 읽는다.】

신남방 신흥시장 개척

도내 5개 중소기업들, 태국 등 4개국 5개사
해외 바이어와 120억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

전북도 5개 중소기업이 12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북도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주)에스시디디, 원진알미늄 등 도내 중소기업 5개사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4개국 5개사 해외유력바이어와 1,020만불(120억 상당)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 해외박람회 참가, 현지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제의 불황 등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어려운 수출상황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신흥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 대응한

값진 성과이다. 익산 기업인 (주)에스시디디(해조류 가공품)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태국 바이어와 첫 만남 후, 지속적인 상담을 추진한 결과 600만불 계약(마린김)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규모 바이어 초청상담회,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유)원진알미늄(알미늄)-태국 100만불, (주)지오이에스(유아의류)-중국 120만불, (주)에니(화장품)-베트남 100만불, 정석케이칼(화학도료)-태국 100만불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남방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올해 들어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세계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의 어려운 수출환경 가운데 일구어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알뜰교통카드’ 시범 2000명으로 확대

자가용 대신 걷거나 자전거,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부터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체험단을 지난해 500명보다 4배 늘어난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제는 전 국민의 교통비 30%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월4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 구입 시 10%(5,000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km당 적립된 마일리지로 최대 20%

의 금액(월간 약 11,000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시내버스 이용요금의 총 30%까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으로 500여명의 시민체험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체험단으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사항을 반영해 올하는 더욱 개선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카드충전수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송홍철 기자



‘올 봄 마지막 벚꽃 보러 가볼까? | 마이산 벚꽃 개화율 80%... 21일 벚꽃축제 개최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마이산 벚꽃이 18일 개화율 80%를 넘어섰다. 마이산 벚꽃은 이번 주말까지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다음 주 엔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은 제주도와 진해를 시작으로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북상해 하동, 전주를 거쳐 서울까지 개화해 올라간다. 서울 운중로의 벚꽃은 이미 절정을 지나 엔딩을 맞

이했다. 하지만 훨씬 남쪽인 진안 마이산 벚꽃은 개화율 80%를 넘어서며, 올봄 마지막 벚꽃을 보기 위한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마이산 벚꽃은 일교차가 큰 고원지대의 기후로 일시에 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산 남부진입로 2.5km 구간에 수령 3~40년의 산벚꽃 수백여 그루가 깨끗하리서도 환상적인 꽃 색깔을 뽐낸다.

관광업계에서도 4월 단체관광의 최고 적지로 마이산 벚꽃 길을 꼽는다. 관광객들은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많이 이용한다. 오르면서 벚꽃을 볼 수 있다. 가는 길에 진안고원 돼지고기 숯불 직화구이와 산나물비빔밥을 파는 식당이 주변에 늘어서 있다. 남부주차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인공호수 탐영제는 암마이봉과 벚

꽃,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압권이다. 호수에서 오리배도 탈 수 있다.

호수를 지나 10분 정도 걸으면 신비의 돌탑군이 나온다. 돌탑을 지나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운수사가 나오고, 운수사를 정면으로 보고 왼쪽을 보면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을 통해 암마이봉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마이산 북부 상가번영회에서 개최하는 ‘진안 마이산 벚꽃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마이산 북부 마이든 테마공원 광장에서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